



Art

아트인컬처
November 2015

Special Feature /
여성, 몸과 제스처
다시 페미니즘을 말한다

Report /
이stanbul비엔날레
오늘의 살롱 & 굿-즈

Artist /
타카노 아야
우고 론디노네



9 771599 137002
ISSN 1599-1377

COVER

우고 론디노네(Ugo Rondinone) <MOONRISE.
east. january> 알루미늄 주조, 갈색
에나멜, 나무 좌대 190×120×110cm(좌대
58×122.5×119cm) 2005 ©studio rondinone

SPECIAL FEATURE

다시, 여성 몸 & 제스처

- 070 ①PICTORIAL
090 ②INTERVIEW / 김홍희
'여성-타자' 그 전복의 힘을 말한다
094 ③ESSAY / 배명지
'여성-몸' 오늘의 지형도
저항이 웃음으로

FOCUS

- 052 추사 김정희, 우성 김종영展
: 조각과 서예의 만남 / 최태만
완월: 비인칭의 춤 / 방혜진
안규철展: '행간'에서의 사유 / 안소연
이불展: 이불, 뷰티풀, 성공적! / 우정아

CRITIC

- 134 아시아, 욕망
: 전북도립미술관 <아시아현대미술전 2015>
/ 김홍기

ARTIST

- 100 우고 론디노네(Ugo Rondinone)
: 자연을 변주하는 시간의 연금술 / 탁영준
108 타카노 아야(Takano Aya)
: 재탄생과 축복, 아르카디아의 바다
/ 임근준 AKA 이정우

ABROAD

- 118 파워스테이션오브아트(Power Station of Art)
: 중국미술 정체성 새로 쓰다 / 채연
126 이스탄불비엔날레(Istanbul Biennial)
: 문명의 관문을 발굴하다 / 백기영

REPORT

- 140 오늘의 살롱 2015, 굿-즈
: 청년작가들, 미술장터에 '나서다' / 탁영준

ART ON PAGE

- 146 굿-즈 그래픽 패키지, GG / 물질과 비물질

NEW LOOK

- 148 양자주: 회화, 쌓고 또 부수기 / 채연
150 한재열: 무명의 얼굴들 / 이현
152 장종완: 뒤틀린 지상낙원 / 탁영준

ART FIELD

- 155 제13회 이동훈미술상, 올해의 작가상 2015,
제6회 두산연강미술상, 제16회 이인성미술상,
제8회 양현미술상, 전혁림미술상, 리칭展,
Seogyo 30展, 헬로!아티스트展, 아트에디션 2015,
제1회 스푼아트페어

ETC.

- 051 EDITORIAL / 장승연
165 SUBSCRIPTION
166 CREDIT

자연을 변주하는 시간의 연금술

스위스 작가 우고 론디노네는 개인전 <feelings>(국제갤러리, 9. 1~10. 11)에서 관객 앞에 거대한 돌 조각작품을 가져다 놓았다. 태초의 세상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은 이 청석 거인들은 요지부동한 채 몇 가지 질문을 던질 뿐이다. 현대인의 눈에 비친 돌, 나무, 하늘은 얼마나 다채로울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자연'이라는 한 마디로 너무나 쉽게 단순화시키는 것은 아닐까? 효율 속도 경쟁 밖에 남은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에 론디노네는 반복 지체 포용의 가치를 깨달을 기회를 선사한다.

/ 탁영준 기자



우고 룬디노네 / 1964년 스위스 브루넬 출생. 빈 응용예술대학 졸업. 1998년부터 뉴욕에 거주하며 활동 중. 파리 퐁피두센터(2003), 시드니현대미술관(2003), 런던 화이트채플갤러리(2006), 뉴욕 뉴뮤지엄(2007), 뉴욕 록펠러플라자(2013), 상하이 록번드미술관(2014) 등에서 개인전 개최. 상파울루비엔날레(1996), 베를린비엔날레(1998), 리버풀비엔날레(2002), 리옹비엔날레(2003), 시드니비엔날레(2014) 등 다수의 그룹전 참여. 베니스비엔날레(2007) 스위스관 어스 피셔와 함께 공동 대표 작가.



〈the night of lead〉전 설치 전경
2009 리움현대미술관(MUSAC)
_2000년 된 올리브 나무를
알루미늄으로 주조한
조각작품(앞)과 하루 24시간의
각 시간별로 이름을 붙인 전구
조각작품 중 〈23rd hour of the
poem〉(2005)

오른쪽 페이지
왼쪽 · 〈SUNRISE. east.
february〉 청동 주조, 은색
자동차용 도료, 콘크리트 좌대
200×140×120cm 2005
오른쪽 · 〈we run through a
desert on burning feet, all
of us are glowing our faces
look twisted〉전 설치 전경 2013
시카고아트인스티튜트

이전 페이지
〈feelings〉전 설치 전경 2015
국제갤러리

아직 여름의 더위가 가시지 않았던 지난 9월
첫째 날, 국제갤러리 K3에서 이번 개인전을
위해 방한한 스위스 작가 우고 론디노네(Ugo
Rondinone)를 만났다. 검은색 반팔 티셔츠와
바지를 입고 맨발의 샌들 차림, 짧게 바짝 깎은
머리와 덩수룩한 수염은 작가라기보다 수도승
같은 인상을 줬다. 천장이 높은 화이트큐브
안에는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고대 거인들 같은
3~4m 높이의 청석(bluestone) 조각작품들이
작가와 함께 서 있었다. 번잡한 도시 속 새하얀
망망대해에 불시착한 것만 같은 이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 이 거인들은 2013년 뉴욕 맨해튼의
록펠러플라자에서 처음 그 위용을 드러냈다.
퍼블릭아트펀드(Public Art Fund)가 주관한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위해 론디노네는
높이 5~7m에 달하는 9개의 청석 거인 조각을
선보였다. “고도로 발달한 도시 풍경과 대조를
이루도록 아주 기초적인 것에 주목하기로 했다.

이 돌 작품은 전형적인 인간의 형상을 띠고
있다. 가장 오래된 재료인 돌을 사용해 가장
자연 그대로의 원시적인 방식으로 작품을 보여
주고 싶었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상태인
‘감정’을 토대로 각 작품의 이름을 지었다.”
국제갤러리에 전시된 대형 조각작품 5개 역시
〈the dutiful〉 〈the inquisitive〉 〈the nosy〉 등
인간의 감정으로 된 이름을 갖고 있다.

공간에 가라앉은 ‘수동성’과 ‘느림’

돌이라는 재료의 자연성 때문인지, 흡사
고인돌이나 스톤헨지를 떠올리게 하는 원시성
때문인지, 청석 거인들은 그렇게 시공간을
초월해 영원히 서 있을 것만 같았다. 이렇게
가만히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어딘가 기대어
있는 모습은 론디노네의 작품 중 인간 형상을
한 조각에서 자주 나타난다. 1995~96년

자신의 모습을 주조한 조각작품 3점도 이렇게 '수동적인(passive)'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1992년부터 영상, 조각, 퍼포먼스의 형태로 빈번히 등장하는 광대 작업도, 나체의 신체를 14~20개의 부분으로 주조해 이어 붙인 조각 연작 <nude>의 인간상들도 마찬가지다. “내 작품 어디에서도 움직임, 직접성, 혹은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역동성(activity)'은 갖가지 가치를 부여하게 만든다. 어떤 방향과 가치를 상징하면 배제의 시스템 역시 함께 기능하게 된다. 나는 배제하고 싶지 않다. 수용하고 열려 있고 싶다. '수동성'은 모든 종류의 가능성에 열려 있는 텅 빈 공간처럼 모든 것을 포용한다. 내게 '수동성'은 가치 생성에 반하는 보호에 관한 것이다. 내 작품의 '수동성'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 낸다면, 이는 '느림(slowness)'이라는 가치일 것이다.”

수동성, 느림은 장르를 넘나들며 작업하는 론디노네의 작품 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다. 그래서인지 차분히 가라앉은 전시장에는 울적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속도와 자극에 민감한 현대인의 생활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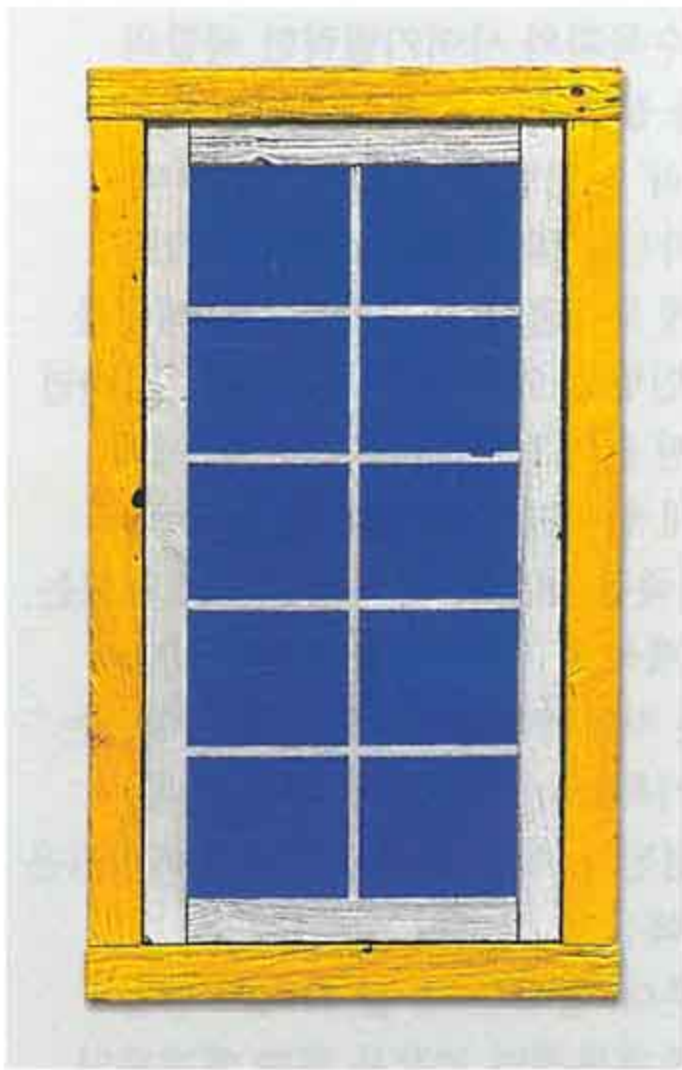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감정이야말로 작품의 뼈대다. 내 작업에서 '우울하다'고 여기는 것을 나는 '느림'이라고 말하고 싶다. 내 가장 큰 관심사는 예술 고유의 '느림'이다. 막 생겨나고 있는 말과 이미지의 '느림'을 경험하는 것 말이다. '느림'은 어떤 존재가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빠름'은 우리가 제 시간에 어딘가에 있어야만 하도록 만들어 우리를 통제하려 든다. '느림'은 우리가 자신의 시간을 제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내 작업에서 나는 시간을 늦추고 그저 내버려 두고 싶다. 아무것도 영원히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이 순환하거나 소생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함께 한 고리로 엮이는 것이다. 내게 미술작품을 만드는 일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다. 어찌됐든 흘러가 버릴 그 시간 말이다.”

론디노네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시간의 자장 바깥에서 시계의 시침과 분침을 떼어 낸 채 살아가는 사람 같다. 시간의 마술사 같은 그는 자신의 작품에 그 작품이 완성된 날짜를 제목으로 붙이기도 한다. 이 '날짜 페인팅'은 동화 속 같은 아련한 풍경화를

그런 대형 수묵화와 사이키델릭한 색깔의 스프레이를 칠해 마치 경계가 흐려진 과녁 같은 '만다라' 페인팅 등 초창기 작업부터 선명한 윤곽선을 쌓아 올린 수평선 페인팅, 캔버스 위에 모래를 깔고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린 별 페인팅 등으로까지 이어진다. “1989년 '날짜 페인팅'을 시작한 이래로 날, 해, 세기 등 익숙하게 쌓여만 가는 '시간'에 몰두해 왔다. 내가 죽을 때까지 지속될 이 프로젝트는 각 작품의 제목에 '날짜'를 포함하고 있다. 세계적인든 지역적이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에 기록되는 역사는 이 날짜 제목 속에서 기념된다. 이런 의미에서 날짜 페인팅은 내 작업의 핵심 중 하나인 '실존주의'를 뒷받침해 준다. 날짜는 내 삶, 그리고 생활 전반에서 존재론적인 고찰을 위한 매개체의 역할을 하며, 내게 존재의 어떤 근본적인 상태를 증명해 준다. 일기식의 메모 같은 내 작업을 통해서 말이다.”

수동성, 느림, 포용 등의 주제는 론디노네의 작업 전반에서 되풀이되는데, 이러한 '반복'은 비단 주제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돌, 나무, 광대, 마스크, 깨진 거울, 창문, 벽,





〈the vacant〉 나무,
플렉시글라스, 페인트 2014

오른쪽 페이지
〈clouds + mountains +
waterfalls〉전 설치 전경 2015
런던 새디콜HQ Copyright
the artist, Courtesy Sadie
Coles HQ, London

미로 등 여러 가지 모티프가 재차 등장한다. “물론 내 작업에는 자기 유사성의 흐름이 있다. 하지만 ‘총체(wholeness)’라는 개념은 질색이다. 각 작품은 각자의 인공적인 중력 체계를 만들어 내야 한다. 자기만의 세계를 창조해 내면서 결국 온전히 하나의 개별 작품이 되는 것이다. 나는 연결을 끊어 내는 걸 좋아하고, 절단과 분리의 방식으로 이뤄진 작품을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이러한 방식은 본질로 결집되는 것에 저항하고, 자기 유사성에 짓눌리는 것을 거부하게 해 준다.”

시인의 사색, 미술가의 종교의식

론디노네가 미술을 이해하는 방식인 시간, 그중에서도 ‘느림’은 그의 또 다른 관심사 중 하나인 ‘시(poetry)’의 특성이기도 하다. 론디노네의 관점에 따르면 “미술이 종합에 탁월한 것이라면, 시는 분석에 적격인 것이다. 시는 외부의 행동이 아니라 내부의 정체 상태를 추구한다. 시는 정체, 애매모호함, 느림으로 가득하다. 관객 역시 내 작품에서 이런 느낌을 얻었으면 한다.” 그의 작품 중에는 무려 75개의 단어, 6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한 편의 시 같은 제목을 가진 영상 작품도 있다. 그렇다고 그가 언어 자체를 작업에 끌어들이는 것은 아니다. “언어는 교활하다. 우리는 어떤 개념을 다른 개념을 빌려와 설명한다. 이걸 승산 없는 게임이나 마찬가지다. 언어의 무력하고 망상적인 구조에 대한 확언과 미술작품의 영적이고 마법적인 힘에 대한 나의 믿음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나는 작품을 언어적 관습에 따라 이해하지 않는다. 오직 느낄 뿐이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는 시와 연관된 것이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뉴욕 뉴뮤지엄의 파사드에 붙어 있던 그의 작품 〈hell, yes!〉처럼, 1995년 취리히에서 선보인 〈cry me a river〉를 시작으로 〈dog days are over〉 〈where do we go from here?〉 〈everyone gets lighter〉 등 작품 제목과 동명의 문구로 이루어진 무지개 텍스트 간판 작품도 작가는 “대중을 위한 시”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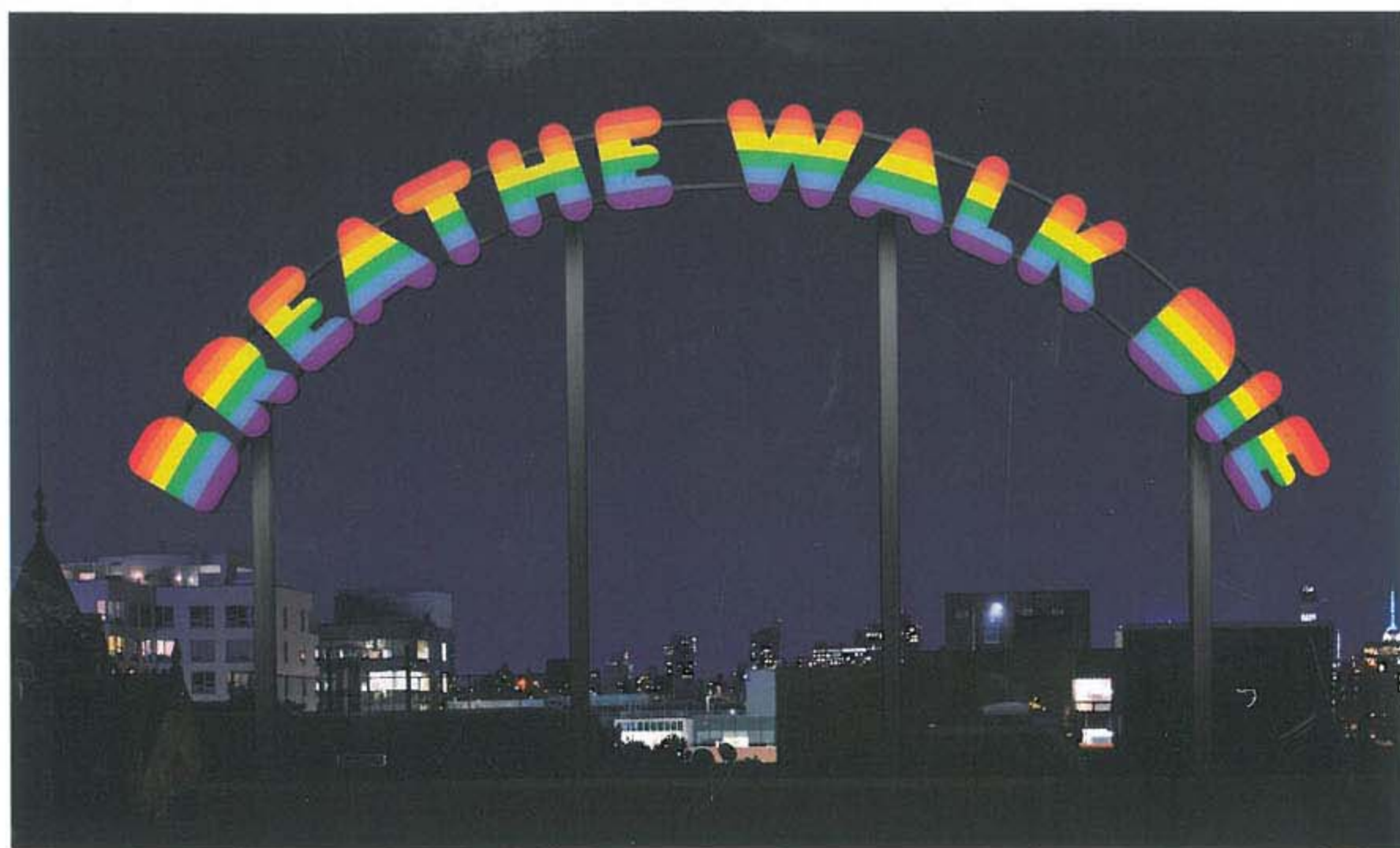
론디노네의 작품 주제들만 나열해 놓고 보면 한없이 정적이지만 그의 작업에는

‘대조’의 묘미가 숨어 있다. “내 작업에는 이원적이고 이중적인 면이 있다. 딱딱한 것과 부드러운 것,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유기적인 것과 무기적인 것, 순환적인 것과 기하학적인 것 등.” 가장 나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인체 조각작품 〈nude〉의 모델은 사실 가장 역동적인 20~30살의 댄서들이다. 청석 조각작품처럼 딱딱한 무생물에 인간의 감정을 이름으로 부여하고, 가장 변화한 도시에 가장 원시적인 작품을 가져다 놓는 것도 마찬가지다. 또한 가장 자연적인 색깔을 가진 이 청석 조각작품과 달리, 올해 10월에 열린 런던 프리즈(Frieze)를 앞두고 9월 런던 새디콜HQ(Sadie Coles HQ)에서 개최한 개인전에서 선보인 신작 〈mountain〉(2015)은 각각 다른 형광 안료를 칠한 돌덩어리 2~6개를 쌓아 올려 제작됐다. 이 신작은 2016년 초에 공개될 대형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일종의 ‘맛보기’다. 현재 렌더링만 공개된 작품 〈seven magic mountains〉 역시 총 7개의 형광 색깔 돌 토템들이며 높이가 무려 10m에 달한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사막 한가운데 설치될 예정으로, 자연미와 인공미가 극단적으로 대치된다.

문득 이 수많은 대형 회화, 조각작품들이 제작되는 스튜디오의 전경이 궁금해졌다. 2011년 론디노네는 1887년에 지어진 뉴욕 할렘의 교회 건물을 통째로 구입해 자신의 집 겸 스튜디오로 변신시켰다. 탁 트인 열린 공간을 좋아한다는 그는 이 ‘교회-스튜디오’에서 몇 주씩이나 틀어박혀 있어도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20,000㎡에 달하는 이 넓은 스튜디오에 스태프는 많지 않다. “어시스턴트를 고용해 내 미술을 경쟁적으로 산업화하지 않는다. 아직도 미술가가 고독 속에서 작업하는 것에 대한 낭만적인 이미지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이게 바로 내가 미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나의 시간을 조직할 수 있다. 작품을 만드는 활동이 나 자신을 위한 종교 의식이자 명상이라고 본다. 나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나만의 의식(ritual)을 만드는 것이다.”

이 스튜디오에는 론디노네의 작품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꾸준히 수집해 온 관상용





수석뿐만 아니라(작가는 이 수석 중 17개를 골라 그 모양을 본떠 대형 조각작품 <we run through a desert on burning feet, all of us are glowing our faces look twisted>로 제작하기도 했다) 약 200여 점에 달하는 미술작품 컬렉션을 꾸려 왔다. 거실은 물론 침실, 화장실까지 발랑탱 카롱(Valentin Carron), 사라 루카스(Sarah Lucas), 어스 피셔(Urs Fischer) 등의 작품으로 '큐레이팅'돼 있다. 실제로 론디노네는 지금까지 4개의 전시를 기획하기도 했다. 지난 1월 빈의 비너세체시온(Wiener Secession)에서 선보인 기획전 <artists and poets>에서는 "흘러가는 파편을 콜라주한 것으로서 이 세상의 풍경을 표현하는 시인과 미술가"의 접점에 있는 작가 15인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하지만 더 주목할 것은 나머지 세 전시다. <the third mind>전(파리 팔레드도쿄, 2007)과 <the spirit level>전(뉴욕 글래드스톤갤러리, 2012)은 각각 내 파트너가 70살, 75살 생일을 맞았을 때 생일 선물로 기획한 전시다. 그러니까 '러브 레터'다."

자연과 어우러진 '퀴어 코드'

전시를 통째로 선물 받을 정도로 사랑받는 론디노네의 파트너는 누구일까? 10월 파리 피악(FIAC)을 앞두고 팔레드도쿄에 론디노네가 기획한 전시 제목에 그 답이 있다. <I ♥ John Giorno>(10. 21~2016. 1. 10). 한때 앤디 워홀(Andy Warhol)의 애인이자 그의 영화 <Sleep>(1963)에 출연해 유명해진 미국 시인 존 조르노는 1960년대 미국 언더그라운드 씬과 비트 세대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시의 대중화를 선포하며 전화를 걸어 녹음된 시를 듣는 대표작 <Dial-A-Poem>(1968)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론디노네와 조르노를 포함해 안젤라 블로흐(Angela Bulloch), 엘리자베스 페이튼(Elizabeth Peyton), 스콧 킹(Scott King), 피에르 위그(Pierre Huyghe) 등 작가 17인의 작품을 함께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조르노를 위한 대형 회고전이다. 거의 20년 가까이 인생을 함께해 온 두 사람은 서로의 작업 활동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은 물론, 조르노가 오랫동안 티베트 불교 수행자이기도 한 점은 선불교 승자 같은 론디노네의 답변들에 대한 힌트이기도 하다.

게이 작가로서의 론디노네는 그 이전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퀴어 이슈에 접근한다. 전문 모델 사진을 차용해 이들의 얼굴을 작가 자신의 얼굴로 뒤바꿔 '드랙퀸'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 사진작품 <i don't live here anymore>(1995~2001)나 검은 공간에서 전신을 뒤덮는 검정색 고무 수트를 입은 인물을 촬영한 사진작품 <moonlighting>(1999) 등에는 '퀴어 코드'가 다분하다. 그러나 론디노네의 작품 전반에 흐르는 '퀴어 코드'는 그가 여러 가지 변주를 가하며 소재로 활용하는 돌, 나무, 산, 눈(snow), 하늘, 새, 말, 물고기, 달력, 황도 12궁, 달, 해 등 '자연' 속에 있다. "내 첫 남자친구가 1988년 세상을 떠났는데, 당시 나는 그저 내 삶을 즐기고 싶었다. 자연 속에서."

론디노네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보편적(universal)'이라고 단정 짓는 자연과 우주에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관점을 부여한다. 그는 자신의 작업에 여러 가지 자연 요소를 끌어들이므로써 보편성의 틀에 갇힌 자연을 해방시키고 관객이 다른 맥락에서 이를 바라보도록 한다. 이는 인류가 공유한 자연, 시간, 역사가 어떤 중심과 권위를 따라 직선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다양하게 읽힐 수 있는지 보여 주는 것이다. 론디노네가 펼쳐 보인 자연의 결은 그의 무지개 텍스트 간판 작품을 밝히는 여섯 빛깔 무지개의 스펙트럼만큼 다채롭다. "나는 다른 무엇도 아닌 독일 낭만주의에 이끌린다. 낭만주의는 처음으로 현실과 환영 사이의 선을 흐렸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미술 그리고 작업 활동이란 시간의 흐름 바깥에 존재하고 선형적 논리에 도달하기 어려운 어떤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시간과 언어와 이미지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무한히 축적되는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미술을 좋아한다. 진정한 정체성, 역사, 의미는 없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구축하는 정체성, 역사, 의미만 있을 뿐이다."



<i don't live here anymore> 5색 커풀러 프린트 35.5×24.5cm 2000_사진작가 마리오 테스티노가 촬영한 모델 겸 영화배우 에바 헤르지고바의 사진에서 인물 얼굴을 론디노네의 얼굴로 대체했다.

왼쪽 페이지 위 · <breathe walk die>전 설치 전경 2014 상하이 록번드미술관 아래 왼쪽 · <breathe walk die> 네온 조명, 아크릴 유리, 반투명 호일, 알루미늄 810×340cm 2014 아래 오른쪽 · <fünfzenhnterm ärzzweitausendunddreizehn> 캔버스에 아크릴릭 2013